



## 제1회 학생문화제 열려 저조한 참여율 아쉬워

지난 9일부터 3일간 제1회 KAIST 학생문화제 'PUMPKIN'이 열렸다. 이번 학생문화제는 동아리 공연과 동아리 부스 행사, 학술제가 함께 열렸다. 동아리 공연은 미래홀에서, 동아리 부스는 스포츠 컴플렉스 앞길에서, 학술제는 창의학습관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동아리 부스와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학우에게 스탬프를 주었다. 학우들은 얻은 스탬프를 가지고 먹거리를 즐겼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 상품으로 교환했다.

축제의 시작인 9일에는 낮 12시부터 각종 분장을 한 학우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12시부터 5시까지 스포츠 컴플렉스 앞길에서는 The Mixer, 바오밥, 칼디 등 다양한 동아리 부스가 진행되었다. 장영신 학생회관과 태울관 사이에서는 할로윈 포토 부스도 운영되었다. 한편, 신학관에서는 최강의 야구 잠바를 겨루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6시 이후로 스포츠 컴플렉스 앞 동아리 부스들이 먹거리 장터로 변신했다. 파전, 두부김치, 분식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스탬프와 교환할 수 있었다. 6시부터 8시까지 창의학습관에서는 Freethinkers와 HAJE의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오전 6시 10분에 가오리 동아리 회원들이 학우들과 같이 혼련을 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아리 부스는 학우들이 프리즈비를 던져볼 수 있는 Titans 부스, 페이스북을 그려주는 그리미주아 부스 등이 진행되었다. 미래홀에서는 8시에 아스트리아스, Ghutto's 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창의학습관에서는 SPARCS, KFAC, 별바라기, Social Maker의 학술제가 열렸다.

동아리 문화제의 세 번째 날에는 스탬프 장터가 열렸다. 스탬프 장터는 동아리 문화제 참여를 통해 얻은 스탬프를 물건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오부터 시작된 장터는 개장된 지 40분 만에 빼빼로를 제외한 전 품목이 소진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KAIST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이하 행준위)에서 일하는 황유진 학우(생명화학공학과 14)는 "동아리 부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스탬프 시장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행준위는 기존의 페이스북 페이지 공유 등을 통한 무작위 상품 배분에서 벗어나, 문화제에 참여한 학우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더 많은 학우가 먹거리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에 쓴 스탬프를 스탬프 시장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했다.

한편, 처음으로 진행된 학생문화제인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학생문화제에 참여한 익명의 한 학우는 "스탬프 제도 등 마음에 드는 점도 분명 있었지만, 동아리 부스 위치나 시작 및 종료 시각이 공지가 안 되어 불편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학술제와 동아리 문화제를 합쳐진 만큼 학생문화제 홍보가 잘되지 않았다는 의견,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원 기자  
rlaw197@kaist.ac.kr



잠깐 친구야 그 카드 봐봐 혹시 스페이드야? 지난 9일부터 3일간 열린 학생문화제에서 학우와 주민들이 동아리 부스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권용휘 기자

## 신용카드 결제사고 대거 발생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학교 구성원 상당수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도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직원 등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해당 카드 업체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우리 학교 교직원과 학우들은 혼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소액의 결제가 해외에서 시도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학우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결제 시도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한 교직원은 "학교와 상관 없는 아닌 개인 카드인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학생들이 불편해하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카드 이용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또 다른 한 학우는 "해외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당황스러웠고 카드를 은행에 찾아가 재발급 받아야 해서 불편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이번 사건이 학교의 전산망을 통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고객만족센터는 포탈을 통해 "우리 학교는 개인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내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 전산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해킹에 대한 시도 또한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한 카드 업체 관계자는 "내부 결제 오류가 아닌 KAIST 인근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포스기가 해킹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제 확인을 위해 승인한 가결제 문자 외에 이후 결제 요청에 대해서는 카드 내부 검사시스템에 의해 지금은 차단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제29대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학교 관계 부서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며, 유성 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준한 기자  
joonhanyi@kaist.ac.kr

## RACS 공개 강연, 인권침해 논란 일어

지난 11월 13일 우리 학교 창조과학 동아리 RACS가 창의학습관 103호에서 '동성애: 기독교인의 관점 그리고 행동', 개인주의와 복음'을 주제로 한 강연을 계획했다. 하지만 해당 강연의 연사인 성인경 목사가 과거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며 치료될 수 있다", "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등 동성애에 대한 부정확하고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지난 일 ARA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연사인 성 목사가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며 치료될 수 있다", "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등의 호모포비아적인 발

언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는 강연이 창의학습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해결을 요구했다.

원칙상 창의학습관은 종교 또는 정치적인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 인권센터,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원총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사인의 승인 절차와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학적팀은 "예약 당시 강연 내용은 듣지 못했다"라며 "창의학습관 사용지침을 통해 행사를 취소할 시, 창의학습관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인권침해적 성향이 강

하다고 생각하고 공식 입장을 학적팀에 전달했다. 따라서 학적팀 및 학생지원팀은 RACS에 장소를 변경하여 공개 강연이 아닌 해당 동아리 원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전했다. 학적팀은 RACS가 공개강연을 할 경우 강사를 교체하거나 논란의 내용을 담지 않고 세미나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강연 당일 RACS는 공개 강연을 취소하고 동아리방에서 진행하는 자체 행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마무리했다.

김지원 기자  
rlaw197@kaist.ac.kr

413호 지면안내

2-3 총학생평가



8-11 2015 노벨상 특집



4 [사람] 아티스트 레지던시



13 [문화] E-SPORTS

